

帶下와 出血

대 하 출 혈



◎ 정상적인 대하와 병적인 대하

흔히 대하가 많다 적다고 쉽게 말하고 있는데 정상은 어느 정도인가. 대하의 양을 측정하는 기준은 없는가. 그리고 병적인 것과 건강한 것은 어떻게 구별하나.

이것은 개인차가 있으며, 호르몬의 영향으로 많아졌다 적어졌다하는 변화가 누구나 다소간 있습니다.

느끼기에도 개인차가 있어서 조금만 나와도 신경을 쓰는 여성이 있는가하면 많은 양이 흐르는데도 대수로이 생각하지 않는 여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양으로 어떤 규정을 짓기는 대단히 힘듭니다. 그러나 대체로 허벅다리까지 흘러내린다면 지 팬티를 하루 두번이상 갈아 입게되면 이상이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색은 맑거나 흰우유빛이면 정상입니다. 붉은빛이면 자궁질부미란(子宮腔部糜爛) 경관(經管) 폴립프가 있기 쉽고, 때로는 자궁암이 있는수도 있습니다.

노란빛이면 보통 건강상태에서도 옷에 묻은것이 마르면 노랗게 보이기 때문에 젖은 것의 빛을 살펴야 합니다. 만약 젖은 것도 노란빛이고 양이 많이 나오면 무슨 병인지 염증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고름빛이면 염증이 있는 증거입니다. 흰색의 대하가 배란기에 (다음 멘스의 2주일가량 전), 흘러나오는것은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염려하실것이 없습니다.

◎ 대하가 있고 가려우면

흰색의 대하가 있고 몹시 가려운데 무슨 병인가.

대하가 있고 가려우면 우선 트리코모나스와 간디다를 의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트리코모나스는 우유와 같은 대하가 흐르며 거품이 섞여 있는 것이 특징이며, 간디다는 비지 찌꺼기같은 것이 섞여서 나오는 것이 다릅니다. 만약 비지 찌꺼기 같은 것이 음부입구에 묻어 있으면 참을수 없을만큼 심한 가려움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것은 검사를 해보아야만 합니다.

트리코모나스는 벌레에 의해서, 간디다는 곰팡이에 의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따라서 한가지 약으로 두병을 다 고칠수는 없습니다.

◎ 가렵지 않고 냄새가 심한것은

별로 가렵지는 않으나 고약한 냄새가 나는수가 있다. 이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자궁경관염(子宮頸管炎)입니다. 임질균이나 포도구균, 대장균 때문에 생긴 병입니다.

급성일때는 고름처럼 진한 것이 흐르지만, 가벼울때는 별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지내는수가 있습니다. 오래 내버려두면 만성이 되는데, 고치기도 힘들어지고, 오랜동안 대하로 고민하게 됩니다.

빨리 의사와 상의하는것이 이익입니다.

◎ 핑크색의 대하

대하의 양이 늘고 핑크빛인데, 이것은 무슨 병일까.

대하의 양이 늘었다는것은 염증이 있다는 증거기도 합니다. 특히 트리코모나스질염(腔炎)이나, 만성경관염(頸管炎)때 이런 현상을 볼수 있습니다. 대하의 색이 핑크빛으로 보이는것은 피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때는 먼저 자궁질부미란(子宮腔部摩爛)이 의심됩니다. 원래 미란이 생기는 자리는 매우 약하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기 쉽고, 염증이 생기면 모세혈관(毛細血管)이 노출되어 전드리기만해도 피가 나옵니다.

때로는 자궁암의 초기에도 이런 증세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증세가 나타나면 무조건 의사를 찾아가는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병명		출혈의 양(量)과 증상	젊은이	중년기	노인
임신중	자궁외임신	소량, 계속적으로	○	×	×
	절박 유산	대량	○	×	×
	포상기태	대량 (중년기에 많다)	○	×	×
	용모상피종		○	×	×+
자궁질부미란	소량, 접촉하면 출혈	○	△	×	
경관염	소량, 대하증을 동반	○	△	△	
폴리프	“, 접촉하면 출혈	○	△	×	
트리코모나스질염	“, 가렵고 대하증동반	○	△	×	
노인성 질염	“, 대하증 동반	×	△	○	
월경이상	여러가지 형태로	○	○	×	
중간출혈	배란기의 출혈(병이 아니다)	○	×	×	
자궁근종(筋腫)	소량, 과다월경, 월경통	○	△	×	
난소낭종	“, 월경통	○	△	△	
자궁경암(초기)	“, 접촉하면 출혈	○	○	△	
자궁체암	“	△	○	○	

○일어나기 쉽다 △때로 일어난다 ×별로 안 일어난다

◎ 소량의 출혈이 있을때

다른 증세는 없는데, 소량의 피가 나오고, 자궁 입구가 혈어 있으면 무슨 병인가.

예기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여성은 그 반수에서 미란을 볼수 있습니다. 단순한 미란에서는 노란빛 대하가 있을뿐 다른 자각증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미란이 생길곳에 세균이 붙으면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면 출혈이 되기 때문에 접촉할때 피가 나옵니다.

이때는 곧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때로는 자궁암이 초기에 미란처럼 시작이 되실수도 있습니다. 이점

대하증(帶下症) 과 부임병

병명	대하의 양(量) 과 증상	젊은이	갱년기	노인
자궁질부미란 (子宮腔部糜爛)	소량, 출혈을 동반한다	○	△	△
경관염(頸管炎)	" "	○	△	×
폴리프	" "	○	△	△
노인성질염	" "	×	×	○
트리코모나스질염	다량, 가려움증 있다	○	△	×
질간디다증	" "	○	△	×
질염(腔炎)	소량 또는 다량 성병이 병발한다	○	△	△
외음염(外陰炎)	소량, 가려움증 있다	○	○	○
중간기의 대하 (병이 아니다)	흰색 또는 투명	○	×	×
자궁경암	소량 또는 다량. 색이 나쁘다 출혈을 동반한다	○	○	○
자궁체암	" "	△	○	○
조기파수 (早期破水)	임신 후기에 대량 물과 같은 것	○	×	×

○ 일어나기 쉽다 △때로 걸어난다 ×별로 안일어 난다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자궁경관(頸管)에 속눈처럼 생긴 폴립우가 있을때도 소량의 출혈이 있습니다. 폴립우는 큰것은 항알만 한것에서부터 작은 것은 완알크기까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표면은 언제나 피가 물려있어 건드리면 피가 나옵니다.

월경량이 많아질때나 부정출혈(不正出血)이 있으면, 자궁근종(子宮筋腫)의 위원이 있습니다. 이병은 비교적 흔한 병입니다. 그리고 심한 월경통·현기증·두통·가슴 두근거림증등의 증세가 따릅니다.

(이영숙)